

새 홈구장 1호 골... 손흥민, 토트넘 역사가 되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첫 경기
EPL 크리스털 팰리스전 2-0 승
후반 10분 선제 결승골
49일만에 득점... 시즌 17호골

‘임시 안방’인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팔팔 날았던 손흥민(토트넘)이 ‘새집’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며 팀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손흥민은 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후반 10분 2-0 승리를 이끄는 결승 골을 터뜨렸다.

이 경기는 10억 파운드(약 1조 5000억원)를 들여 지은 신축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이 치른 첫 경기였다.

공사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지기를 거듭한 끝에 이날 5만9215명이 들어찬 가운데 화려하게 문을 연 날이었다.

최근 리그 5경기 무승에 빠져 4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던 토트넘으로선 새 구장에서의 첫 승과 상위권 재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다.

이날도 토트넘은 전반 12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무득점에 시달리며 자칫 잔칫상을 누리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손흥민이 ‘새 구장 1호 골’을 뽑아내며 열기를 끌어 올렸다.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 이후 상당 기간을 보낸 웹블리 스타디움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득점포였다.

새 구장이 지어지는 동안 2년 넘게 썼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은 맹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7-2018시즌 중엔 웹블리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토트넘 선수로는 2004년 제메인 데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리그 5경기 연속 골’의 주인공이 되는 등 안방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50m 질주’ 끝에 첼시를 상대로 뽑아낸 멋진 리그 첫 골, 지난해 12월 달성한 유럽 통산 100호 골 등이 모두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기록됐다.

페이스가 최근 다소 주춤한 가운데 손흥민은 49일 동안 이어지던 골 침묵을 새 경기장 ‘1호 골’로 깨뜨리며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2월 14일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이후 손흥민의 득점포는 이 경기 전까지 멈춰 있었다.

국가대표팀에선 파울루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시달리던 무득점을 지난달 끝냈으나 소속팀에선 주포 해리 케인의 부상 복귀 이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팀도 위기에 빠졌다.



“아~ 행복해”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개장 경기에서 후반 10분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1호 골을 터트린 뒤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은 최전방이 아닌 2선에 배치된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설 세 없이 상대 수비진을 휘저었고, 후반 들어서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뛰다 결승골까지 만들어 내 팀에 없어서 안 될 존재임을 재확인했다.

후반 막바지까지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그는 경기 종료 직전 빅토르 완야마와 교체돼 나가며 팬들의 기립박수를 한 몸에 받았다.

손흥민은 홈 경기를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 “새 구장은 정말 ‘언빌리버블’하다.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며 “여기서 첫 골을 넣은 데 대해 동료들과 팬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팀의 동료, 스태프, 팬

과 함께 하는 게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경기에 나서 수 있을 기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스피드로 허 찢러라”

여자 축구 내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
빠른 공·수 전환·세트피스 훈련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본선 상대인 노르웨이를 가상한 모의고사에서 스피드와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린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만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갖는다. 이어 9일 오후 4시 45분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아이슬란드는 FIFA 랭킹 22위로 한국(14위) 보다는 8계단이 낮고 올해 여자 월드컵 본선에 나오지 못했지만 유럽 예선에서 독일에 이어 조 2위에 오를 만큼 만만찮은 전력을 가졌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신장이 크고 강한 체력으로 무장해 노르웨이를 대비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상대다. 우리 여자대표팀이 아이슬란드와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오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건 스피드를 이용한 빠른 공수 전환과 세트피스를 이용한 득점 루트 찾이었다.

여자 월드컵 본선 상대인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모두 높이고 체력적 우위를 가진 팀이라서 속도감 있는 공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리그 1위 광주 FC ... ‘거미손’ 이진형의 힘

K리그 2... 올 1월 영입 4경기 2실점
박진섭 감독 수비강화 전략 성공
7일 안양과 일전... 홈에서 3연전

최다 득점만큼 빛나는 ‘리그 1위’ 광주FC의 최소 실점이다.

광주는 지난 3월 정규리그 4경기에서 ‘득점 1위’ 펠리페(7득점)를 앞세워 9골을 넣으면서 3승 1무(승점 10)로 K리그2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아산 무궁화(3승 1패·승점 9)도 앞선 4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면서 광주를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실점에서는 광주가 독보적인 1위다.

4경기를 치르면서 광주가 허용한 실점은 2점에 불과하다. 대전 시티즌, 수원 FC, FC 안양이 4실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산은 광주와의 첫 맞대결에서 0-4패를 당하면서 7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 후 실점 패턴으로 어렵게 올라가던 지난해와 다른 ‘뒷심’의 중심에는 지난 1월 영입한 수문장 이진형(30·사진)이 있다.

2011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한 이진형은 안양, 아산 경향청(현 아산 무궁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면서 144경기를 소화한 9년 차 베테랑 선수다.

인천에서 뛰던 지난 2017년 이진형은 후반기 14경기 연속출장과 함께 8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극적인 잔류를 이끌기도 했다.

박진섭 감독은 이진형을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

성장세를 보인 윤평국(27)과 함께 경쟁체제를 구축, 수비 강화에 공을 들였다.

팀 최고참 김태운(32)과 박정수·정다환(31)에 이어 팀의 4번째 형님이기도 한 이진형은 원래 있던 선수처럼 이내 팀에 녹아들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그는 지난 2라운드 아산과의 홈 개막전에서는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4-0 무실점 대승을 장식했다.

광주의 시즌 첫 실점은 지난달 17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기록됐다. 하지만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골이었다.

앞선 전남 드래곤즈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첫 필드 실점이 남았지만 이진형은 든든한 수문장과 형님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격수들부터 수비를 잘해줘서 수비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다. 슈팅을 많이 안 줘서 실점을 많이 안 한 것 같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린 이진형은 “공이 오면 범위 내에서 내가 막는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공을 안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팀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럽다. 가족처럼 승격이라는 목표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게 이진형의 이야기다.

이진형은 “선수들이 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내가 안 해도 (김)태운이 형이나 (박)정수형이나 여름이가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다(웃음). 목록히 내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쟁을 해서 경기를 들어가는 것이니까 훈련할 때부터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선수층이 많이 두꺼워져서 누가 나가든 승격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작으로 홈 3연전을 치른다. 이진형은 “홈에서 3연전이 있다. 홈에서 하는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